

제3절 부(賦)

綱目賦¹⁾ (강목부)

新齋 崔山斗

(신재 최산두(장원급제시))

宋日中天 運啓文治 光岳氣專 士類蔚起 天生晦翁²⁾ 以壽吾道 卓百世而高峙(一句缺) 挹濂溪之翠草³⁾ 徽龍門之遺音⁴⁾ 淵冲器識 天高海深 俛仰長懷 宇宙萬古 嘗念百王 繼統繩繩 接武事故 不同世態多變 代有史氏 各拘所見 隨意低昂 是非難辨 豈可使清論 遂泯公道不傳 直者曲者 芳者臭者 渾同歸而磨滅也哉 乃遊心司馬編次之史⁵⁾ 精究尼父筆削之旨⁶⁾ 上自三晉始侯之年⁷⁾ 下迄八姓迭倡之紀⁸⁾ 權輕重於方寸 定去留於毫芒 嚴予奪之機關 計名實之難詳 幾年覃思 而聿成一部 儼然綱自綱 而目自目 江漢浩浩其淵深 日星昭昭其森列 揣摩乎十四代之世道⁹⁾ 以籠駕乎千三百六十二年之文物 鑑自無塵 妍媸無所逃其形 衡既正平 輕重何所遁其情 名器至重¹⁰⁾ 強弱誰倫 節義可尚 富貴何論 仗義爲直 人始知乎忠 武后煽毒肆夏 孰不曰帝在房州¹¹⁾ 解綬歸田 竟念處士之貞 媚新投閣¹²⁾ 難逋大夫之誅 千古綱常 賴而不墜 春生秋殺乎既骨九原之幽¹³⁾ 此晦翁所以維持世道 眷眷之念 雖聖人復起 亦必謂深得當時筆刪之餘法矣¹⁴⁾ 彼遷之所謂奇博¹⁵⁾ 固之所謂醜鄙¹⁶⁾ 嘩之所以誣¹⁷⁾ 壽之所以僞¹⁸⁾ 支離衆說 無可徵者 至是而皆不得其矜眩 比如蟋蟀之音 遇洪鍾而自止 此綱目所以炳炳烺烺 耀人耳目 扶植倫紀者 若菽粟命脈生民 而不可一日而無者也 噫 著書垂後 雖儒者事 得君行道 乃當年志 是何享嘉難會 名流多謗 邪言已入正學 坐黨格君 一念雖切 邇英之召對 論政六事¹⁹⁾ 其奈託胄之弄權²⁰⁾ 卒使經世之志 但寓夫言語文字之間 宋之不得與於斯文 豈不慨然乎 雖然 道行於身 只致一世之治平 道傳於後 是啓萬世之文明 天既窮尼父於前 使伸夫大一統之義於周室東道²¹⁾ 而使後世之向道者 得與夫一轍之嘗 則聖賢修春秋著綱目之意 吾(二字缺)何先後遷之後 天又窮晦翁於後 使展夫內夏外夷之志於宋氏南渡之後 天之所以窮其身 乃所以亨其之無蹶 今泰運方亨 道脈正肥 深依之托 豈獨前輩 爲溯伊洛之淵源²²⁾ 服洙泗之典型²³⁾ 志朱子志 而講行當時未行之志 以答夫皇天付卑之重者 深有望於大雅不器之君子也²⁴⁾

1) 綱目賦(강목부) : 강목(綱目)은 중국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저술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라는 역사서이며 이에 대해 찬미한 부채(賦體)로 된 시문이다. 이 글은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1483~1516)가 연산군(燕山君) 10년(1504) 22세 때 진사(進士)에 장원으로 등제(登第)한 글이다. 글의 내용이 너무나 잘 되어 세상에 회자(膾炙)되었다고 함.

2) 晦翁(회옹)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저자인 주희(朱熹)의 호

3) 濂溪(염계) : 중국 북송(北宋)의 대유학자인 주돈이(周敦頤)의 호이다. 명도 정호(明道 程顥)와 그 아우 이천(伊川 程頤)의 스승이며 주희는 명도와 이천의 학통을 계승했다.

4) 龍門(용문) : 중국 한(漢)의 사마 천(司馬遷 BC145~BC86)의 거주지임. 사마천은 사기(史記)를 편찬하였으므로 용문지유음(龍門之遺音)은 사마천이 남긴 사기(史記)를 뜻한다.

5) 司馬(사마) : 중국 북송(北宋)의 학자이며 정치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성(姓)임. 사마광은 영종(英宗)의 명을 받아 19년간에 걸쳐 편찬한 것이 294권으로 된 자치통감(資治通鑑)이다. 이 자치통감은 주(周)의 위열왕(威烈王) 23년(BC 403)부터 후주(後周)의 현덕(顯德) 6년(AD 959)에 이르는 1362년간의 편년체(編年體)로 된 통사(通史)이다. 자치통감강목은 주희(朱熹)가 자치통감의 요목(要目)을 뽑아 1362년간의 사적(史蹟)을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정통사상(正統思想)으로 강령(綱領)과 조목(條目)을 서술한 사서(史書)이다.

6) 尼父筆削之旨(이부필삭지 지) : 이부(尼父)는 공자(孔子 B.C 552~B.C479)를 말하는 미칭(美稱)임. 노(魯)나라 은공(隱公)으로부터 애공(哀公)에 이르는 242년간의 사서(史書)를 춘추(春秋)라 하였는데 공자는 이를 대의명분(大義名分)과 정통사상(正統思想)에 입각하여 필삭(筆削)하고 포폄(褒貶)하였다는 뜻임.

7) 三晉始侯之年(삼진시후지년) :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B.C403)에 제후국(諸侯國)인 진(晉)의 3대부(大夫)가 진후(晉侯)를 시해(弑害)하고 진나라를 3분하여 차지하였다. 주(周) 왕조는 의당(義堂) 정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제후로 봉해 주었다. 그러므로 차지통감이나 통감강목은 여기에서부터 기필(起筆)한 것이다.

8) 八姓迭倡(팔성질창) : 중국의 당(唐)이 멸망(907)한 뒤에 송(宋)의 통일(960)까지 여덟 성(姓)이 바뀌어 가면서 왕조의 흥망이 계속하였으니 즉 후량·후당·후진·후한·후주(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가 흥망을 거듭하였으니 역사상 이를 오대(五代) 또는 오계(五季)라고 구분한다.

9) 十四代之世道(십사대지세도) :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기필(起筆)한 주(周)의 위열왕(威烈王)부터 당(唐)에 의하여 명망된 후주(後周)에 이르기까지 정통(正統) 14왕조 1362년간을 말한다.

10) 名器(명기) : 나라의 관직과 제도

11) 帝在房州(제재방주) : 중국의 당(唐) 고종(高宗)의 왕후 측천무후(則天武后)가 고종사후에 아들 중종(中宗)을 폐하여 방주(房州)로 내치고 예종(睿宗)을 세웠다고 다시 예종을 폐하고 스스로 제위(帝位)에 올라 국호를 주(周)라하고 21년 동안 정권을 독점한 사실이 있었음.

송(宋)의 해가 중천(中天)에 솟아 국운(國運)이 열려 문치(文治)가 행(行)하여지매, 온 나라에 광악(光岳 : 三光五嶽)의 정기(精氣)가 오롯하여 선비들이 성대히 일어났도다. 이에 하늘이 회옹(晦翁 : 朱子)을 내어 오도(吾道)를 길이 전(傳)케하니 오도(吾道)가 탁연(卓然)히 백세(百世)에 우뚝 서게 되도다.(본문 중 일구(一句) 빠짐)

회옹(晦翁)은 염계(濂溪 : 周敦頤)의 학문을 이어받고 용문(龍門)의 유음(遺音)에 빛이 있게 하였으니 그 깊고 깊은 기국(器局)은 지식이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도 깊다. 그 구부리며 펴며 사색해 온 길고 긴 생각들 속에는 우주만고(宇宙萬古)가 다 담기어 있도다.

일찍이 백왕(百王)이 왕통(王統)을 계승하여 대대로 이어 나온 것들을 생각하면, 대(代)마다 일이 일어난 까닭이 같지 아니하고 세태(世態)의 변천이 심하도다. 이에 대대로 사씨(史氏 : 史官)가 있어 역사의 변천을 기록하였으되, 저마다 그 소견(所見)에 구애(拘礙)되고 생각에 따라 저양(低昂) : 낮추었다 높였다 함)하니 시비(是非)를 분별(分辨)키가 심히 어려웠다. 그러나 어찌 청론(淸論)을 민멸(泯滅)케 하고, 공도(公道)를 부전(不傳)케 하며, 곧은 것(直者)과 굽은 것(曲者)과 향내나는 것(芳者)과 악취 나는 것(臭者)들을 뒤섞어 다 한가지로 마멸(磨滅)케 하라.

이에 사마광(司馬光)이 편차(編次)한 사서(史書)을 깊이 음미(吟味)하고, 공자(孔子)의 춘추필삭(春秋筆削)의 의미를 정밀(精密)히 궁구(窮究)하여, 위로 삼진(三晉 : 晉의 三大夫)이 처음 제후(諸侯)로 봉(封)함을 받던 해로부터 아래로 팔성(八姓 : 五代 때 帝位에 올랐던 여덟 姓)이 질창(迭倡 : 서로 바꾸어 일어나 창성 함)했던 시대까지를 마음 가운데에 그 사료(史料)들의 경(輕)·중(重)을 저울질하고 세밀(細密)한 살핌 끝에 버리고 두는 것을 결정하며, 또 주고 빼앗는 기틀을 엄격히 기록하고, 명(名 : 大義名分)과 실(實) 역사의 실제, 사실을 상세(詳細)히 기술하기 어려운 바를 헤아리기를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하였던가.

이토록 수년(數年)을 깊은 생각에 잠겨 이 한 책을 이루어내니 엄연(儼然)히 강(綱 : 綱領)과 목(目 : 條目)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았도다.

아! 강한(江漢 : 중국의 揚子江과 漢水)은 호호(浩浩)하여 그 연원(淵源)이 깊고 해와 별은 소소(昭昭)히 삼렬(森列 : 촘촘히 배게 늘어 서 있음)하였도다. 14대의 세도(世道)를 다 헤아려 어루만지고 1362년의 문물(文物)을 다 담아 다루었으니, 거울이 스스로 티가 없어 곱고 추함이 그 모습을 도

망치지 못하고, 저울이 이미 바르고 공평하니 그 실정(實情)을 숨기지 못하였다. 명기(名器)가 지중(至重)하니 강약(強弱)을 어찌 가리며, 절의(節義)를 숭상(崇尚)하니 부귀(富貴)를 어찌 논(論)하라. 의리(義理)에 의지해서 바르게 행(行)하게 되니 사람들이 비로소 충(忠)을 알게 되도다.

측천무후(則天武后)가 독(毒)을 풍겨 중하(中夏 : 중국)를 난동(亂動)하니 누가 황제가 방주(房州)에 유폐되어 선비들이 벼슬을 버리고 전리(田里)로 돌아가면서 처사의 정렬(貞烈)을 생각하고 신(新)에 아첨하여 그를 찬양한 대부의 주살을 면할 수 없었음을 말하지 않았느냐. 천고강상(千古綱常)이 이에 힘입어 무너지지 않게 하며, 춘생추살(春生秋殺)의 천리(天理)를 순행(順行)케 하여야 한다. 이미 백골(白骨)이 구원(九原)에 묻힌지 오래이지만, 이것이 바로 회옹(晦翁)이 세도(世道)를 유지(維持)키 위해 권권불망(權權不忘)하며 생각한 바다. 그러므로 비록 성인(聖人)이 다시 일어난다 해도 또한 반드시 당시(當時)의 필산지여법(筆刪之餘法)을 깊이 얻었다 하리도다.

저 소위(所謂) 기박(奇博)하다 하시고 하는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나 문장이 광락이 있고 묘미(妙味)가 있다는 반고(班固)의 한서(漢書)며 근거 없는 글이라고 하는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며, 거짓된 글이라고 하는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 등류(等類)들은 다 그 지리중설(支離衆說)들을 징험(徵驗)할 수가 없으니, 이에 이르러서 이것들이 다 그 궁현(矜眩)을 얻지 못함은 비유(譬喻)컨대, 귀뚜라미 소리가 홍종(洪鍾)의 큰 소리를 만나매 스스로 놀라 그 울음을 그침과 같도다. 이것이 바로 강목(綱目)이 병병량량(炳炳烺烺)하여 사람의 이목(耳目)을 휘황케 하는 바요, 윤기(倫紀)를 부식(扶植)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속속(菽粟)이 생민(生民)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써 하루도 없지 못하는 것과 같음이다.

아! 저서(著書)를 후세에 남기는 일이 비록 선비의 일이고 임금의 지우(知遇)를 입어 도(道)를 행(行)하는 일은 당년(當年)의 뜻이긴 하지만, 어찌 이다지도 아름다움은 누리기 어렵고 명류(名流)들은 또 비방(誹謗)을 많이 받는 건가. 간사(奸邪)한 말들이 이미 들어오매 정확(正學)이 당류(黨類)에 연좌(連坐)되도다.

임금을 바른길로 인도하겠다는 오직 한 생각에서 어진 선비를 가까이 부르는 임금의 부름에 응해 비록 간절히 정치의 여섯 가지 급무(急務)를 논주(論奏)하였으나 한탁주(韓託胄)가 농권(弄權)하던 때니 어찌 뜻을 펼 수가

12) 媚新投關(미신투각) : 중국 한(漢)나라의 전한(前漢)과 후한(後漢) 사이에 왕망(王莽 B.C45~A.D23)이 계위(帝位)를 찬탈하여 국호를 신(新)이라하고 신황제라 칭한 사실이 있음. 이때 대학자인 양웅(楊雄 B.C53~A.D18)이 왕망에 아첨하여 신(新)을 찬미한 글을 지어 괴뢰정권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필주(筆誅)를 면치 못하였다.

13) 春生秋殺(춘생추살) : 봄은 만물을 성장(生長)케 하지 만 가을은 만물을 숙살(肅殺)하니 생과사의 순행(順行)하는 이치를 말함.

14) 筆削之餘法(필삭지여법) : 공자가 춘추대의에 의하여 쓸 것을 쓰고 가질 것은 갖는 것을 말함.

15) 彼遷之所謂奇博(피천지소위기박) : 중국 전한의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이 편찬한 130권이 기전체(紀傳體)된 역사서가 위로는 황제(黃帝)로부터 전한무제(前漢武帝) 원수 원년(B.C122)까지의 서술이 기이(奇異)하고 박식(博識)함을 말함.

16) 固之所謂醜鄙(고이소위농욕) : 중국 후한(後漢)의 역사가 반고(班固 A.D32~92)가 편찬한 120권의 기전체(紀傳體)로된 역사서·한고조(漢高祖)에서 왕망(王莽)의 신(新)에 이르는 229년간의 전한(前漢)일대의 역사서인데 그 내용이 농후(濃厚)한 맛과 향기있는 문체로 되어 있다고 함.

17) 曄之所以誣(엽지소위무) : 중국 송(宋)의 역사가 범엽(范曄)이 편찬한 120권으로 된 후한(後漢)의 역사서인데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무명(誣妄)한 것이 있었다고 함.

18) 壽之所以僞(수지소위위) : 중국 핏의 역사가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65권으로 된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서는 허위(虛僞)가 있었다고 함.

- 19) 論政六事(논정육사) : 중국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효종(孝宗)에게 시정급무(時政急務) 6개조를 상소한 것을 말함.
- 20) 託胄之弄權(탁주지농권) : 중국 남송(南宋)의 한탁주(韓託胄)(?~1207)는 주희(朱熹=朱子)와 그 학파를 위학(僞學)으로 몰아 배척하여 추방함으로써 소위 정원(慶元)의 당금(黨禁)을 일으켰다.
- 21) 大一統之義(대일통지의) : 유가(儒敎)에서는 두개 이상의 왕조가 존재 한다해도 오직 하나의 정통왕조가 있다는 사상을 말한다.
- 22) 伊洛之淵源(이락지연원) : 이(伊)는 이천(伊川) 낙(洛)은 낙양(洛陽)인데 북송(北宋)의 정이(程頤 1033~1107) 정호(程顥 1032~1085) 형제가 아우 정이는 이천에서 형 정호는 낙양에서 강학(講學)하였기 때문에 이락의 연원(淵源)이라 하여 주자(朱子)가 이 학통을 계승하였다.
- 23) 洙泗之典型(수사지전형) : 공자가 살았던 산동성 곡부(曲阜)에 있는 두 하천인 수수(洙水)와 사수(泗水)인데 공자의 학통을 수사학(洙泗學)이라고도 함.
- 24) 不器之君子(불기지군자) : 인격과 지혜가 갖추어져 어떠한 곳에서도 능통한 선비

있었으리요. 마침내 세상을 경륜(經綸)할 큰 뜻이 다만 언어문자(言語文字) 사이에 부쳐지고 말았으니, 송(宋)이 사문(斯文)에 참여치 못함이 어찌 개탄(慨嘆)스럽지 아니한가.

비록 그러하나 도(道)가 당대(當代)에 행(行)하여진 즉 다만 일세(一世)의 치평(治平)에 이를 뿐이요, 도(道)가 후세(後世)에 전(傳)하여진 즉 이것이 곧 만세(萬世)의 문명(文明)을 여는 길이다.

하늘이 이미 앞에서 공자(孔子)를 곤궁(困窮)케 하여 주(周)나라가 동천(東遷)한 후에도 왕조(王朝)의 정통(正統)을 주(周)나라에 두어 역사를 기록케 함으로써 대일통(大一統)의 의(義)를 펴게 하였고, 하늘이 또 뒤에 회옹(晦翁)을 곤궁(困窮)케 하여 송(宋)나라가 남으로 옮긴 후에도 중하(中夏)와 이적(夷狄)을 내외(內外)로 구분하여 중하(中夏)를 높이고 이적(夷狄)을 낮추는 뜻을 펴게 하도다.

이렇듯 하늘이 성인(聖人)의 몸을 곤궁(困窮)케 한 까닭은, 그 도(道)를 형통(亨通)케 함으로써 후세의 향도자(向道者)로 하여금 더불어 그 도(道)의 진미(眞味)를 맛보는 데 참여케 함이니, 이것이 곧 성현(聖賢)이 춘추(春秋)를 수찬(修撰)하고 강목(綱目)을 저술한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선(先)을 떨쳐 (공자가 춘추를 지은 뜻) 일으키기 위해 분발(奮發)치 않으랴. 본문중 (二字) 빠짐

이제 태운(泰運)이 바야흐로 통하고 도맥(道脈)이 정(正)히 살찌고자 하도다. 하늘이 심의(深衣 : 학문과 덕이 높은 선비)에게 내린 의탁(依托)을 어찌 전배(前輩)들만의 할 일이라 하리요. 이낙(伊洛 : 程朱學)의 연원(淵源)을 거슬러 올라가 궁구(窮究)하고, 수사(洙泗)의 전형(典刑)을 사복(思服)하며, 주자(朱子)의 뜻을 지향(志向)하여, 당시(當時)에 행하여지지 못하였던 뜻들을 강구(講究)하여 행(行)함으로써, 하늘이 이 도(道)를 내려 준 중(重)한 뜻에 보답함이 있기를 대아불기(大雅不器)한 군자(君子)에게 바람이 있는 것이니라.

집필 : 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박태상